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18 | 2018년 3월호

함께 성장하는 스승 &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 & 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Only One”

※ 이 사례는 이동곤 경북 대영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대영중의 Wee클래스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자존감 향상!’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교우·가족 관계와 진로·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운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드게임으로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작은 성공경험 체험으로 자신감 찾기’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또래 도우미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솔리언 또래상담사를 활용한 멘토링’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과 ‘사제동행 멘토링’이 특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영화 감상하고 친구와 느낀점 나누며 ‘자존감 회복’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5명과 또래 멘토 5명이 모여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점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다리와 팔이 없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사는 호주인 ‘닉 부이치치’의 영상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성악가로 성장하는 ‘파파로티’ △위안부 피해자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아이 캔 스피크’ 등을 관람하고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말문을 잘 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담교사는 ‘내가 너 부이치치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옥분할머니였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 등의 질문이 적힌 활동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활동지에 정리한 뒤 친구들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용기를 얻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감상평을 나누며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인도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난독증으로 학업능력이 뒤쳐져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미술 교사를 만나 자신의 그림 재능을 발견하고, 점차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사람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온리 원(Only one)’이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너희도 ‘넘버 원’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살린 ‘온리 원’이 돼보자”는 상담교사의 말에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인관계 개선해주는 ‘사제동행 멘토링 활동’

가족 또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사제동행 멘토링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ee클래스와 교내 연구부, 학생부, 교육복지부의 협업으로 운영됐는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또래 멘토, 자발적 참가자 등 1~3학년 학생 30명 가량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탐방하고, 경북 상봉역으로 기차여행을 떠났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기차와 관광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정을 나누고, 정서적인 안정을 충족했습니다.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서대문 역사관에서 특정 인물을 찾고, 그의 활동 조사하기’ ‘수목원의 식물을 휴대폰으로 찍어 교사에게 전송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었고, 교우관계가 개선돼 학교로 돌아가서도 인사를 나누며 돈독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충북지역 교사동아리 '샘나(SEMRA)'

전자현미경으로 식물 관찰하고, 사진전 열며 교사 역량 UP!



생태학에 대한 학술 활동을 진행중인 '샘나' 소속 교사들. 조진선 교사 제공

충북지역에는 생물(생태)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 교사 50명이 모여 만든 동아리 '샘나(SEMR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esearch Association)'가 있다. 샘나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생태의 과학적인 현상을 교사들이 직접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해 체험·연구해보며 교사의 역량을 신장하고, 이렇게 쌓은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들어졌다. 샘나 소속 조진선 충북 원봉중 과학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교사 역량 강화로 교실 수업 개선!

샘나 소속 교사들은 한 달에 한번 둘째 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교사들은 생물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동료교사에게 발표하는 학술 활동과 충북 교육과학연구원에 방문해 전자현미경으로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동아리 활동은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수업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뿌리, 줄기, 잎, 꽃잎 등 '식물의 구조'에 대해 발표하면 설명을 준비하는 교사도, 발표를 듣는 교사도 보다 정확하게 식물의 구조를 이해해 수업 역량이 신장되는 것.

조 교사는 "생물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교과 융합의 아이디어도 얻는다"며 "미술교사는 식물의 형태와 색을 관찰하며 창작활동의 아이디어를 얻고, 기술교사는 이러한 식물의 특성을 활용해 어떤 기술과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학생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은 식물의 표면구조나 꽃가루 등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사진으로 촬영해 수업 자료로 활용했다. 조 교사는 "학생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면과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데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교사 동아리에서 쌓은 지식을 지역 사회로 환원!

샘나 소속 교사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쌓은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생명의 신비함과 생물체의 생존방식 등을 알리는 ‘비밀의 화원’ 사진전을 10년간 실시했다.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청주 근교의 초·중학교 교정에 설치된 식물 정보 안내 팻말을 교체·수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정에 여러 식물을 심고 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 팻말을 곳곳에 설치하는데, 팻말 속 내용이 지워져있거나 틀린 경우가 있었던 것.

조 교사는 “학생들에게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생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와 수업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환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